



세대초월 미래 위한 '투자' 한 호흡

전남 화순·구례·곡성

화순 불교 활성화 요인 가운데 중요한 화두 하나는 '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젊어진다 것은 변화와 역동적인 움직임을 말한다. 물론 새로운 마인드는 필수조건이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이 모여 젊은 생각을 나눈다면 금상첨화.

근래 들어 화순지역은 젊은 스님들이 모이면서 활력을 찾고 있다. 화순의 대표적 전통사찰인 운주사, 만연사, 개천사, 쌍봉사 등의 주지가 40대로 한창 때이다. 지난해 이들 젊은 스님들이 화순사암연합회를 정비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부쩍 빨라졌다.

화순사암연합회는 지난해 10월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내에 불교법당을 개원했다. 지도법사는 경주불교병원 법당을 맡았던 유마사 주지 일장 스님이다. 일장 스님은 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 기본소양교육부터 시작했다.

또한 사암연합회는 지난해 화순 시내에서 건물을 임대해 무료급식소를 개설했다. 급식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40여명의 독거노인, 불우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비와 자원봉사자는 사암연합회 소속 사찰이 분담하고 있다.

남면 모후산에 자리한 유마사는 내년에 호남최초의 비구니 승가대학을 개원한다. 5년간의 대작불사로 새롭게 거듭나는 유마사는 교육을 통해 호남불교를 일신하겠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화순 40대 주지스님들 '봉사'로 포교·신행 견인

구례 화엄사 등 큰 절 준비... '은근한 불심' 과시

곡성 관음사 효 교육, 성륜사 철야정진 '브랜드'

천불천탑의 운주사도 수행, 기도, 포교, 문화휴식 등 종합도량을 목표로 장기간 계획에 따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운주문화축제를 지역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축제의 기획과 진행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민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독특한 형태다.

이처럼 광주광역시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신행 활동도 광주에 의존하던 화순불교는 서서히 자체 신행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

구례·곡성 조계종 19교구본사 화엄사를 위시해 구산선문 발상지 태안사, 심정전의 원류 관음사, 불교계 큰 스승 정화 스님이 주석한 성륜사 등 대가람이 즐비한 구례·곡성은 어느 지역보다 불교와 인연 깊은 부처님 땅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역불교계의 활동은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 어린이, 학생회, 청년회, 신도회, 직장기능단체를 통틀어서 변변한 신행단체가 없다. 불교유치원은 물론 불교관련 복지시설도 찾아볼 수 없다.



화순사암연합회는 지난해 10월 화순 전남대 병원 내에 불교법당을 개원하는 등 포교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렇다고 불교세가 약한 것도 아니다. 어느 지역보다 불교적 정서가 강한 곳이 이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해 발생한 서남아시아 지진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자비탁발에서 3만 인구의 구례에서만 400여명 원이 모였다는 것만 보아도 불교의 힘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으로 지리산 남쪽 은화산 지역에 자리해 있어 신행과 신심도는 은근한 편이다. 올해로 20회째 불교예술타운을 준비하고 있는 지리산 불락사는 불교음악을 통해 부처님세상을 구

현해 가고 있다. 불락사 예술제는 음악인들 사이에 한번은 꼭 서고 싶은 무대이기도 하다.

최근 곡성군은 관음사 사적지를 바탕으로 '심정'을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관음사도 불교와 심정, 효 사상으로 이어지는 교육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중이다.

성륜사는 청화 스님 열반 후에도 주말철야정진, 재가선원 운영 등으로 흐트러짐 없이 큰 스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화순·구례·곡성=이준업 기자

절집이야기 방승으로

금중 스님 (구례 천은사 주지)

스님들의 수행담 만큼 재미있고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 도 없다.

동진 출가한 금중 스님은 40여년간 전국의 제방 선원을 다니며 경봉, 전강, 향곡 스님 등 당대 최고의 어른스님들을 시봉하며 정진했다.

그동안 보고 느낀 절집이야기를 광중, 부산불교방송을 통해 3년 가까이 소개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스님의 수행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신심과 분심을 내지 않을 이가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올봄에는 방송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묶어 책으로 낸다.

천은사에도 스님의 이야기법문을 듣고자 찾는 이의 발길이 끊을 않는다. 금년에는 이들에게 불교의 집맛을 전하기 위해 시민선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문중의 노스님들을 공양하며 정진하고 있는 스님은 노스님과 노인들이 될 수 있는 복지시설건립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행대중 '외호'가 수행

종효 스님 (곡성 태안사 주지)

"또다시 주지로 온 것을 보면 못다 한 일이 많았나 봅니다."

종효 스님은 25년 전 태안사 주지를 맡았을 때는 너무 힘이 들었다. 피해질 수 없는 것이 '인연법'이기에 '이번에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다. 결심이 남다른 수밖에 없다. 구산선문 수행도량에 오직 수행자들이 외호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대중들을 위해 직접 장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게 늘 허심하는 종효 스님을 대중들은 존경한다. 이번 안거에도 20여명의 스님들이 원가선원에서 정진중이다.

더 많은 수행대중을 위해 하선원(동일암)을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가수행자를 위한 선방도 준비 중이다. 금년에는 일반인을 위한 여름 수련회와 주말 수련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도량정비과정에서 출토된 약사여래 불수(佛手)를 도대로 청동 약사여래불을 복원했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청화스님 유훈 잇기 매진

도일 스님 (곡성 성륜사 주지)

15년전 창건된 성륜사는 짧은 연륜에도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 중심에는 2년 전 입적한 청화 스님의 수행력과 큰 스님을 시봉하며 굶은 일을 도맡아 행한 도일 스님이 있다. 주지 도일 스님은 6년 전 금강선원을 확장해 수좌들이 제대로 안거에 들게 했고, 재가자 선방을 개원해 승속이 함께 정진토록 했다.

또한 주지 부임과 동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철야정진 법회를 개설해 함께 정진에 참여하고 있다. 수행뿐 아니라 불교교육도 중요시 여겨 매월 2회씩 경전법회를 직접 주관하고 있는 스님은 오는 2월부터 <전수경>강좌를 새롭게 시작한다.

해인사 율원 출신의 율사 도일 스님은 청화 스님 대비식후 큰 스님의 유지에 따라 거마비를 전국 선원으로 회향해 최근 문제화되고 있는 여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불교음악 발전의 주역

상훈 스님 (구례 불락사 주지)

불교종합예술 법패(梵唄)를 계승 발전시켜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이 상훈 스님의 발원이다. 대금, 가야금은 물론 서양악기에 이르기까지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다. 1990년 지리산자락에 불락사를 창건했다. 사명 그대로 '불교음악의 집'으로 법당도 보고전이다.

20여 년 전, 박범준 중앙대 총장과의 인연으로 쌍계사 국사암에서 불교예술제를 시작했다. 요즘 전국 사암마다 펼치는 '산사음악회'의 시발이다. 해마다 초파일을 기해 펼쳐는 야단법석이 올해로 20회째다. 매년 박범준, 김성녀 씨를 고정으로 안비취, 목계월, 김택수 사물놀이 등 국내 최고의 음악인이 다녀갔다.

'붓다' '이차돈의 죽음' 등 교성곡에 직접 출연한 스님은 매년 구례축제의 '남악제'의 전야제 시가행진과 남악제제를 감독하고 연출한다.

'심정설화'로 포교 원력

지인 스님 (곡성 관음사 주지)

심정전의 원류 관음사, 주지 지인 스님의 화두는 불교와 심정, 효 사상을 어떻게 접목해 나가는가이다. 먼저 황폐한 가람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난한 시골사찰이기에 직접 중장비를 운전하며 축대를 쌓고 가람의 틀을 잡고 있다. 아직 함께하는 대중이 없어 혼자서 주경야선(晝耕夜禪)한다.

가족이 함께 쉬면서 심정설화를 통한 불교 가르침을 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더불어 빨치산 교육관이었던 요사채는 역사체험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스님은 또한 사찰입구 2천평 규모의 역사발을 활용해 10월경 산사음악회를 구성하고 있다.

주지부임 첫해에는 지역불교활성화를 위해 사암연합회를 결성하고 곡성읍내에서 해마다 제등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지역 청년회, 신도회 결성도 추진 중이다.

천불천탑 도량 '사이버' 세계로

정행 스님 (화순 운주사 주지)

조계종 기획·연구수강장에서 교구본사 재무·사회국장까지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은 정행 스님은 운주사를 단순 관광사찰에서 종합도량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스님이 추구하는 종합도량은 수행 기도, 포교, 문화휴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사찰전산화 사업을 마치고 종단프로그램인 가람지기와 홈페이지(www.unjusa.org)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엔 선원을 확충해 더 많은 수좌들이 찾도록 하고, 운주사의 상징인 와불전을 건립해 기도도량의 면모를 갖추어 예정이다. 또한 운주문화 홍보관을 설립해 영상센터, 갤러리, 세미나실, 석조문화재연구소, 운주문화공동체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로 10회째인 운주축제는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운영진반을 주민에게

맡기며, 칠월칠석 전통다례제를 금년부터 전국적인 축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복지사업 매진

정과 스님 (화순 만연사 주지)

"내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나와 보니 할일이 많다."

선방 수좌로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던 정과 스님이 첫 주지소임을 맡아 포교 현장에 나선 지 5년. 늘상 느끼는 것은 도량정비에서 신도교육, 자비실천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가 바쁘다는 것이다.

올해 3회째 모집중인 교양불교대학은 화순 유일의 신도교육장으로 최고의 강사진 확보가 자랑이다. 해마다 3월 신학기면 중·고생 1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소년소녀 가장과 저소득층을 맺어 보살피고 있다.

정과 스님은 복지에도 관심이 지대하다. 불교복지사업을 펼치기 위해 방생 법회보시금을 5년째 적립하고 있다. 초발심을 잃지 않고자 안거철이면 전국의 선방 세 곳을 다니며 대중공양을 올리는 등 수행자 외호에도 적극적이다.

화순은 송광사 2세 진각국사의 고향으로, 진각국사를 조명하고 사상을 홍보하고자 세미나, 기념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대중속에서 전법·봉사 발원

보화 스님 (화순 개천사 주지)

"울곧은 정진이 최상의 포교다." 보화 스님의 신념이자 절학이다. 스님은 언제나 하나도 수행, 둘도 수행이다. 수행도량 봉사에 전념하던 스님이 지난해 10월 화순사암연합회장을 맡았다. 침체한 지역불교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뜻을 같이하는 지역 사암 스님들과 심시일반으로 화순읍내에 무료급식소를 개설했다. 자원봉사를 위해 연꽃봉사단을 결성하고 운영비는 사암연합회에서 분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로 개원한 화순 전남대병원 법당을 연합회에서 맡아 개설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화순불교의 속원사업인 불교회관 건립에 나선 예정이다. 불교유치원과 불교대학을 유치해 교육과 자비실천으로 지역불교를 일으키자는 복안이다. 선방을 전전하던 스님이 개천사에 머문 지 5년. 폐허 속에 법당과 선방이 건립되고 이제는 내용 채우기에 들어갔다.

인터뷰 / 화엄사 주지 명섭 스님

"환경 파괴되면 수행도 없어요"

"환경보호가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이자 수행이다"고 강조하는 화엄사 주지 명섭 스님은 환경 학자 못지않은 환경 전문가로 수행환경 분야에 일가견을 이루고 있다. 스님은 지난해 조계종 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더욱 바빠졌다. 개발로 인한 사찰의 수행환경 파괴와 참배객 증가로 인한 산중사람의 폐수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화엄사 산하 40여개의 말사에 강조하는 것도 사찰의 무리한 증축보다는 친환경 수행공간을 후대에 남겨주자는 것이다.

스님은 강론을 펼치던 화엄사 '광학장'을 정비해 수련회와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참배객이 잠시라도 사찰에 머무르며 불교를 체험토록하기 위해서다. 수련회를 통해 발우공양을 비롯한 친환경적인 사찰생활이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지도록 하기위해 힘쓰고 있다.

금년에는 포교영상, 동시통역 시스템을 갖춘 국제규모의 연수원을 착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입진할 때 회생된 의승들의 넋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도 추진 중이다.



비구니 전문승가대학 교육장으로 쓰일 유마사 육화료 전경.

유마사, 호남최초 비구니 승가대학 불사중

5년 전만해도 화순 유마사(주지 일장)는 강에서 소가 풀을 뜯던 폐찰위기의 작은 암자였다. 그러던 이곳에서 불교계가 약한 호남불교에 일대변혁을 일으키는 대작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호남 최초의 비구니 전문 승가대학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웅전을 비롯해 만세루(법당), 육화료(교육장), 향당(교수실) 등이 건립되고, 내년 2월 초입공사를 마치고 동국대 교수를 역임한 주지 일장 스님은 "유마사 승가대학은 내년부터 학년 당 30명씩 선발한다"며 "불교계뿐 아니라 화순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를 자랑한다. 내부의 강 및 발우공양하는 대강의실과 속소가 마련되며, 2층에 독서실이 자리한다.

사교, 대교반을 위한 선열당과 부속 시설을 남겨두고 있는 유마사 승가대학은 오는 4월경 구족계 수계식을 봉행한다.

일부유학을 마치고 동국대 교수를 역임한 주지 일장 스님은 "유마사 승가대학은 내년부터 학년 당 30명씩 선발한다"며 "불교계뿐 아니라 화순을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